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프레임 전략 분석

202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김 병 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프레임 전략 분석

지도 교수 권 일 응

이 논문을 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김 병 로

김병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위원장 엄 석 진 (인)

부위원장 권 혁 주 (인)

위원 권 일 응 (인)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주요 언급을 분석함으로써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선전 프레임을 활용하는지를 확인하고, 프레임 전략의 목적과 의도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교착상황에 놓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 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특히 2022.2 러시아의 침공 이후 양측의 소모적 공방전이 장기화되어 전쟁이 발발한지 2년이 도래하게 되는 시점에서, 푸틴의 언급 분석을 통해 향후 러시아의 프로파간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관계 및 전황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전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 대통령실 홈페이지(en.kremlin.ru) 게재 내용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통령실 정보를 연구대상으로 정한 것은 푸틴의 언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푸틴 언급이 러시아 정부 입장을 직접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푸틴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프로파간다의 양상과 프레임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러시아의 정책 방향성과 효과를 파악하고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러 대통령실 홈페이지(<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에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시점부터 최근까지(2021년 10월~2023년 9월) 게재된 정보를 크롤링 방식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푸틴 언급을 분석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와 더불어 단어 벡터 간 유사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단어의 의미를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인 워드투벡터(Word2Vec) 기법을 적용하였다.

워드투벡터 기법을 활용해 푸틴이 젤렌스키 정부를 쿠데타를 통해 집권

한 정통성 없는 세력이자, 나치 부역 논란이 있는 우크라이나 인물인 ‘반데라’를 영웅으로 삼고있는 ‘나치’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서방’ 등을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러시아는 ‘나치 네이밍’, ‘대량학살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기억과 트라우마를 소환함으로써 프로파간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은 러시아인들에게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실존적 위협요인’으로 프레임함으로써 정책 의제설정 및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위협 제거라는 미명하에 추가 군사동원, 에너지 시설 등 민간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 등과 같은 강경한 군사조치가 러시아 내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은 우크라이나 집권세력을 ‘나치’·‘파시스트’와 동일시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2024년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정치엘리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며, 이런 혐오 감정의 확산은 향후 정전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푸틴이 돈바스 주민 해방을 ‘특별군사작전’ 이유로 강조해 온 상황에서 돈바스와 크림 지역 포기라는 것은 국내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옵션이 되기 때문에 외교정책 및 대외협상 측면에서 ZOPA(Zone of possible agreement) 범위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혐오 수준이 높아질수록 러시아 내부적으로 강경한 군사조치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러-우간 전황이 장기화되고 정전협상 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정보전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을 탐색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 쇼이구 국방장관 방북(7월), 김정은 방러(9월), 러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방북(10월) 등에 따른 러시아-북한간 긴밀화 동향을 감안할 때, 북한은 러-우간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을 연구하며 우리에게 대한 심리전 전략에도 활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프레임’ 전략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안보정책에 갖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러시아 크렘린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개된 정보 외에 러시아의 프로파간다 전략과 군사 심리전술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에 관한 정부 공식문건이나 고위 정부인사의 발언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가 확인될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프레임 전략 연구를 한층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푸틴, 텍스트 마이닝, 우크라이나, 프레임 전략, 워드임베딩, 워드 투벡터(Word2Vec) 기법

학 번 : 2019-24643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6
제1절 연구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	6
제1항 내용 분석	6
제2항 텍스트 마이닝의 특징	7
제3항 워드임베딩(Word Embedding) 기법	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1
제1항 정책학에서의 ‘프레이밍(framing)’ 이론	11
제2항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 관한 프레이밍 연구	16
제3항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러시아 정책 연구	19
제4항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	20
제 3 장 연구의 설계	22
제1절 연구대상 및 범위	22
제2절 연구 주제의 설정	23
제3절 연구의 구성	24
제 4 장 연구 결과	26
제1절 키워드 빈도 분석	26
제2절 워드투벡터(Word2Vec) 분석	27
제1항 워드투벡터(Word2Vec) 분석 활용을 위한 코딩	27

제2항 ‘우크라이나’ 관련 키워드 연관어 분석	29
제3항 ‘서방(west)’ 용어 연관어 분석	31
제4항 네오-나치 (neo-nazi) 및 반데라(bandera)	31
제3절 러시아의 ‘프레이밍’ 전략 분석	32
제1항 NATO에 전쟁 발발 책임 전가	33
제2항 ‘나치’ 네이밍	36
제3항 ‘반데라’ 네이밍	37
제4항 ‘봉쇄’·‘대량학살’ 스토리텔링	40
제4절 프레이밍 전략의 파급영향 전망	43
제1항 우크라이나 대상 강경 군사조치 정당화	43
제2항 우크라이나 협오가 정전협상 장애요인으로 작용 ...	45
제 5 장 결론	4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48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0
제3절 우리 안보정책에 갖는 시사점	51
참고문헌	54
[부록 1] 단어 노출빈도 및 순위	59
[부록 2] 워드투벡터 ‘우크라이나’ 연관어 순위	61
[부록 3] ‘봉쇄’(blockade) 단어 빈도	63
Abstract	64
표 목차	
[표 4-1-1] 러 대통령실 수집 데이터 개요	26

제 1 장 서 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에 관한 가장 대표적 주장은 미국 시카고대학 미어세이머(Mearsheimer)의 것으로서, 그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이탈해 NATO에 통합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한다.¹⁾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NATO 동진 정책을 고수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러시아가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그 동맹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야기한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NATO의 디지털 프로파간다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NATO의 “HANDBOOK OF RUSSIAN INFORMATION WARFARE”에 따르면 러시아에게 “정보 전쟁”은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며, 이 개념은 ‘심리 작전’(PsyOps)을 비롯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첩보 및 방첩, 허위조작 정보, 전자전, 통신 약화, 심리적 압력, 적 컴퓨터 기능 파괴 등을 포괄한다.²⁾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나치, 히틀러 옹호세력으로 규정하는 내러티브를 확산하며 젤렌스키 정부를 비난하는 프로파간다를 지속해 왔다.³⁾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러시아에게 우호적 전장(battlefield) 정보와 내러

1) Mearsheimer, J. J. (2014).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Foreign Aff.*, 93, 77.

2) Keir Giles(2016), “Handbook of russian information warfare”. Rome : NATO Defense college.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역사왜곡 및 거짓선동 프로파간다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 https://internews.ua/storage/app/media/Re_vision_2019_block%20eng.pdf(검색일: 2023.10.1.)

티브(narratives)를 사이버 공간에 대량 유포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디지털 선전(digital propaganda)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⁴⁾

프레임은 인식의 복합적인 체계이며 텍스트는 이를 완전히 표현하고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의 상당 부분은 화자의 말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⁵⁾ 따라서 러시아의 전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프레임 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하여 푸틴의 대내외 메시지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러시아 대통령실 홈페이지(en.kremlin.ru) 게재 내용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통령실(en.kremlin.ru) 자료는 연방의회 연설(Addresses to the Federal Assembly), 주요 이슈들에 대한 성명(Statements on Major Issues), 실무면담 및 컨퍼런스(Working Meetings and Conferences), 연설(Addresses), 각계 단체 대표들과의 면담(Meetings with Representatives of Various Communities), 기자회견(News Conferences), 인터뷰(Interviews) 등을 망라한 것이다.

본 연구가 대통령실 정보를 연구대상으로 정한 것은 푸틴의 언급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푸틴 언급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푸틴의 절대적 권위와 정책 영향력을 고려할 때, 푸틴의 언급 내용은 러시아의 정책 의도와 방향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푸틴의 언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 설정 및 정책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푸틴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신하

4) 송태은(2022),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내러티브·플랫폼·세 모으기 경쟁」, 『국제정치논총』 제62집 3호, 213-255

5) 심준섭, 김지수(2011), 「갈등연구에서 프레임분석의 적용 가능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는 프로파간다의 양상과 프레임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러시아의 정책 방향성과 효과를 파악하고 통찰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러 대통령실 홈페이지(<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에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시점부터 최근까지(2021년 10월~2023년 9월) 게재된 정보를 크롤링 방식을 사용하여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푸틴 언급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와 더불어 인공 신경망 학습을 통해 벡터화하는 워드 임베딩을 활용하였고, 단어 벡터 간 유의미한 유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단어의 의미를 수치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인 워드투벡터(Word2Vec) 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푸틴의 주요 언급을 분석함으로써 i)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선전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지, 기존 확인된 프로파간다와 차별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ii) 푸틴이 구성하는 프레임 전략의 의도는 무엇이며 전쟁 국면에서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iii) 프레임 전략이 양국관계에 미치는 과급영향과 전쟁의 향배를 전망해 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통해 전쟁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향후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상하는데도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의 워드투벡터 기법을 활용해 푸틴이 젤렌스키 정부를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정통성 없는 세력이자, 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에 부역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물인 ‘반데라’를 영웅으로 삼고있는 ‘나치’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푸틴 언급 데이터를 워드임베딩 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크라이나’, ‘서방’ 등을 부정적 이미지로 연관 짓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 러시아는 ‘나치 네이밍’, ‘대량학살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기억과 트라우마를 소환함으로써 프로파간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은 러시아인들에게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실존적 위협요인’으로 프레임함으로써 정책 의제설정 및 집행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나치 정권을 내세운 서방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보다 강경한 군사조치와 정책이 고려될 수 있다. 프레임 전략은 우크라이나 전쟁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추가 군사동원, 우크라이나 민간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미사일 공격, 나아가 전술핵무기 사용과 같은 ‘예외적 강경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우호적 정책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정치엘리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여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며, 혐오가 커질수록 양국간 정전협상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푸틴이 ‘돈바스 주민 해방’을 명분으로 침공을 정당화했기 때문에 향후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포기하는 결정은 국민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푸틴의 강경한 선전 프레임으로 인해 정전 협상의 ZOPA(Zone of possible agreement) 범위는 축소되며, 이는 앞으로도 양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전협상에 착수하기 위한 유화적 대화국면에 장애를 조성하여 결론적으로 전쟁을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정보전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정책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을 탐색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를 입수해 왔으며, 현재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연구하며 전략을 원용해 나갈 것으로 추정된다.

2022.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곧 전쟁이 발발한지 2년이 되는 시점이 도래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떠한 ‘프레임’ 전략을 통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하는데 통찰을 얻고, 우리의 안보정책에 갖는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연구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내용 분석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이란 텍스트 자료 조사의 하나로서, 인쇄된 자료와 언론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의사소통의 내용을 연구하는 체계적, 객관적, 양적 기술의 조사기법이다. 베버(Weber)는 “내용 분석이란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일련의 절차들을 활용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홀스티(Holsti)는 “내용 분석이란 구체적으로 기술된 메시지의 특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추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정의한다. 내용분석 방법의 대표적 이론가 중 한 명인 크리펜도르프(Krippendorff)는 “내용 분석이란 텍스트 또는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맥락들로부터 재현 가능하고도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데 사용되는 연구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내용분석이 텍스트에 담긴 메시지의 특성, 의도, 구조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분석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적국에서 발행되는 각종 문서와 보도자료를 분석하여 적국의 현황과 전략을 파악하려는 군사적 목적에 기여하면서 크게 발달하였다.

내용분석은 빈도 분석과 같이 자료를 통계적 지표에 맞추어 처리하는 양적 분석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메시지의 의도 등에 주목하는 질적 분석 기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용어가 노출되는 빈도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그 용어가 사용되는 전체적인 맥락과 구조에서 갖는 의도와 의미를 질적인 분석기법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질적 분석을 통해서 텍스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용 분석 방법은 다시 정성적 접근과 정량적 해석의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최성호·정정훈·정상원, 2016). 정성적 내용분석은 연구자가 텍스트를 분석하고 자신의 논점과 비판적 관점을 투영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정성적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크게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정량적 내용 분석은 텍스트를 수집하고 코딩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를 따른다(Krippendorff). 정량적 분석도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6)

2. 텍스트 마이닝의 특징

텍스트 마이닝은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나 지식을 추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 트렌드, 또는 관계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텍스트 마이닝은 일반적으로 i)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에서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 ii) 데이터를 정제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며,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데이터 전처리’ iii)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사용하여 텍스트에서 패턴, 추세, 상관관계를 찾는 ‘패턴 인식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iv) 추출된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지식을 도출하고 해석하는 ‘분석 단계’를 거치게 된다.

6) 김재우(2020).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사회과 교육과정 시기별 학술담론의 특징 분석」.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텍스트 마이닝은 크게 자연어 처리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으며, 자연어 처리(NLP)는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며,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한다. 텍스트 마이닝을 위해서는 텍스트를 더 작은 단위인 '토큰'으로 분할하는 토큰화(Tokenization)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텍스트의 구조를 단순화하여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토픽 모델링 (Topic Modeling)은 문서 집합에서 숨겨진 주제 구조를 발견하는 방법이며,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이 있다. 이 기법은 문서를 여러 토픽의 혼합으로 간주하고 각 토픽이 특정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감성 분석 (Sentiment Analysis)은 텍스트에 담긴 감정(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는 소비자 리뷰, 소셜 미디어 게시물, 뉴스 기사 등에서 의견, 태도, 감정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제품 리뷰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기법중 하나인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은 텍스트 데이터 내의 단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수치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환을 통해 기계 학습 모델들이 텍스트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텍스트 마이닝은 비즈니스 정치 분석, 시장 조사, 고객 서비스, 의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대규모 데이터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워드임베딩(Word Embedding) 기법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의 하나인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은 텍스트 마이닝과 자연어 처리(NLP) 분야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법 중 하나이다. 이 기법의 목적은 단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며, 단어들을 다차원 공간에 벡터로 표현하여, 단어 간의 의미적, 문맥적 관계를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워드 임베딩은 각 단어를 고정된 크기의 다차원 벡터로 변환하며, 이 벡터는 해당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며,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벡터 공간에서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 워드 임베딩은 단순히 단어의 의미만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사용된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문맥의 유사성을 파악함으로써 같은 단어라도 다른 문맥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반영한다. 단어의 단순한 상관성이나 빈도를 통한 분석은 단어의 문맥적 의미(context)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문맥상의 차이에서 오는 단어 사용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워드임베딩은 특정한 단어의 주변에 있는 단어 집합을 이용하고 문맥을 반영하여 단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표현(representation)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종희 등 2015)

구글이 개발한 워드2벡터(Word2Vec),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개발한 GloVe(Global Vectors for Word Representation),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FastText 등이 대표적인 워드 임베딩 모델이다. 워드2벡터(Word2Vec)의 학습 방식에는 CBOW(Continuous Bag of Words)와 Skip-Gram 두 가지 방식이 있다. CBOW는 단어의 좌우에 있는 단어 입력으로 중간에 있는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이고, Skip-Gram은 중간에 있는 단어를 입력하여

주변 단어들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CBOW는 주변 맥락의 단어(context word)들을 통해서 중심 단어(center word)를 예측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중심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앞, 뒤로 몇 개의 단어를 분석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범위를 윈도우(window)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윈도우 크기가 n 이라고 한다면, 실제 중심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 참고하려고 하는 앞, 뒤 주변 단어의 개수는 $2n$ 이 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 1항 정책학에서의 ‘프레이밍(framing)’ 이론

프레임(frame)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서로 다른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져 왔다. 우선 프레임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Bateson(1972)은 프레임을 ‘맥락의 틀’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운동이론에서는 Goffman(1974)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Goffman은 프레임을 사람들이 개인적 삶의 공간, 세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해석의 도식(Schemata of interpretation)’이라고 보았다.

행정학과 정책학 관점에서 살펴보면, Schon & Rein(1994)에서는 정책 갈등은 프레임들 간의 갈등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하연섭(2010)은 프레임은 일반 국민들에게 특정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책엘리트들이 활용하는 상징이나 개념이며, 프레이밍은 정책적 논쟁 이슈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여지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프레임과 프레이밍의 개념을 구분하자면, 이러한 프레임(frame)을 형성하는 과정을 프레이밍(framing)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프레이밍은 개인이 외부의 사건을 해석하고, 초점을 맞추고, 조직화하는 정신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Snow et al., 1988; 1986).

Van Hulst, M., & Yanow, D. (2016)는 정책 프레이밍은 의사소통적 행동의 일반적인 형태이며,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현상을 프레이밍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동적으로 구축되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프레임 개념은 동일한 이슈가 행위자마다 다

르게 정의("프레임")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책 프레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정책 논쟁은 종종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제시되는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정책 프로세스에서 우리는 프레임링을 통해 ① 상황의 특정 특징을 강조하고, ② 다른 특징을 무시하고, ③ 선택된 특징을 일관된 패턴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프레임링은 '센스-메이킹'(sense-making), '네이밍(naming), 스토리텔링(storytelling)에 관한 것이다. 센스메이킹은 집단적으로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불확실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센스메이킹은 사고와 행동을 모델화하고, 그 행동을 기존 사고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네이밍(naming)은 선택하고 범주화하는 것이며, 주의를 끌기 위해 선택된 특징들은 명명되어야 한다. 프레임링은 또한 스토리텔링을 수반한다. 상황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하나로 묶고, 일관성 있고 파악할 수 있는 패턴으로 구성한다. 정책 과정에서 프레임링은 정책 문제의 실질적인 내용, 정책 과정에서의 행위자간의 정체성과 관계, 정책 과정 자체의 세 가지 방향으로 작동한다.⁷⁾

Mintz(2003)는 국제정치 및 국제관계에서의 프레임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치적 조작을 시도하는 프레임링은 행위자가 의사결정자를 표적으로 삼고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프레임은 의사결정 환경의 특정 요소/영역 (예: 국가 안보, 경제, 정치 또는 외교)에서 대중을 민감하게 반응하도록(sensitize) 만드는 초점 렌즈 역할을 할 수 있다. 프레임은 또한 국가지도자들이 선호하는 정책 입장에 대한 지지를 장려하기 위해 주목한 속성의 두드러짐에도 영향을 미친다. 손

7) Van Hulst, M., & Yanow, D. (2016). From policy "frames" to "framing" theorizing a more dynamic, political approach.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46(1), 92-112.

실 프레임(loss frame)이 국가 지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국가가 손실 영역에 있는 경우, 그 지도자는 국내 지지자들에게 보다 위험을 수용하는(risk-acceptant) 정책과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적과 심각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면, 손실 프레임은 지도자가 국내 의회나 대중과 관련하여 움직일 여지가 거의 없다는 신호를 적에게 보낼 수도 있다.⁸⁾

B. Guy Peters(2013)는 정책조정 과정에서 위계적 방식의 대안으로서 프레임을 설명한다. 아이디어는 내재적 갈등 해결시 다른 자원보다 중요하며, 조정을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협력 대상기관들이 가진 프레임의 강직성도 협력방식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식인과 전문가 집단의 정책 프레임은 단순한 경로의존성을 가지는 경우 보다 교체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Entman(2006)은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을 통해 프레이밍 이론의 다양한 개념과 접근 방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임이 형성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Gitlin(1993)은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에서 미디어가 사건과 이슈를 어떻게 프레임화하고 이로 인해 대중의 인식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Nisbet & Myers(2010)는 "Framing Effects on Public Opinion about Climate Change"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이 대중의 의견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특히 어떤 프레임이 환경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8) Mintz, A., & Redd, S. B. (2003). Framing effec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ynthese*, 135, 193-213.

Iyengar & Kinder(2009)는 "Framing Responsibility for Political Issues: The Case of Poverty"에서 정책 문제인 빈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프레임하는지에 따라 정책 선택과 대중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며,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Scheufele(2002)는 "Framing and Agenda Setting"에서 프레임과 아젠다 설정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프레이밍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Tichenor et al.(2007)는 "Framing and Reframing Public Opinion: How the Media and Advocacy Groups Define and Debate Immigration Issues"을 통해 이민 문제가 어떻게 언론과 단체들에 의해 프레임되며, 이로 인해 이민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 또는 반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조사하였다.

Iyengar et al.(2010)는 "Framing the Economy: The Media and the 2008 Economic Crisis"에서 2008년 금융 위기를 다룰 때 어떻게 미디어가 경제 문제를 프레임화하고 경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연구하였다.

하민철, 윤건수(2010)는 정책프레임이 행위자, 대안, 가치 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우선 정책프레임은 특정인의 관점과 견해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주된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정책프레임에는 행위자가 주장하는 정책이슈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이슈는 정책을 둘러싼 행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의 내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대안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대안은 정책수단을 말하고 가치는 대안이 가져올 최종 정책목적을 의미하며, 상당부분 논리적 근거나 대외 명분과 관련된다.

강민아, 장지호(2007)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에 대한 정책결

정과정을 프레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 엘리트들은 동일한 정책문제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의미를 부각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반 국민이나 정책수용자들이 사회적 쟁점을 인식하도록 유인한다.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우호적 여건을 형성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프레임링(Framing) 전략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서준경(2008)은 인터넷실명제를 예시로 들어 사회적 구성주의의 시각이 딜레마 연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주안을 두어, 특정 행위자가 어떻게 의도된 방식으로 딜레마 상황을 사회적으로 구성하고 조정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책딜레마 잠재기-정책딜레마 형성기-정책딜레마 증폭기-정책딜레마 완화기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시민단체가 프레임 정렬(frame alignment)을 통해 정부의 프레임에 맞서는 새로운 의미와 이해관계를 가진 대항 프레임을 설정함으로써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정책의 결과 가치와 무관한 보호된 가치(protected value)의 문제로 구성해 내어 일반 대중 및 관련단체들의 동조와 지지를 유도해 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심준섭(2012)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에서 반대측인 지역 주민들과 지지측인 정부 공무원들의 갈등 프레임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이 때 갈등 프레임은 일종의 메타 프레임, 즉 구체적인 프레임이라기보다는 갈등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구체적인 프레임들로 세분화된다고 보았다. 연구자는 갈등 프레임을 세부적인 프레임들로 나누고 양측 프레임 분석을 통해 세부 프레임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다. 분석 결과 강정마을 주민들은 환경위험 프레임이 지배적 프레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 측은 주민의 반대를 손익 프레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해석하였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나태준(2006)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주어진 정책사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프레임링을 형성하는지, 프레임링들은 어떻게 서로 대립하고 조정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논쟁 이슈에 미치는 파급 영향 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정부당국과 외부행위자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며 조정적 담론기회의 박탈과 의사소통 담론기능이 상실된다고 비판하고 있다.⁹⁾

제 2항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 관한 프레임링 연구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Leiden University)의 Fortuin, E. (2022)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인을 대량학살 한다”(“Ukraine commits genocide on russians”) 제하의 연구를 통해서 러시아가 프로파간다를 통해 ‘대량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우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Donbas)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언어정책(러시아어 통제)을 대량학살로 선전한다. 저자에 따르면 러시아 선전에서 "집단 학살"이라는 용어는 러시아인을 혐오하는 나치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인에 대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수사적 틀의 일부이다. 이 수사적 프레임은 1991년 이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되어 단계적으로 발전했으며, 2004~2005년 오렌지 혁명 기간 동안 더욱 일관된 프레임이 되었고,

9) 이지현 (2015). 「옹호연합간 정책프레임 충돌과 정책변동 :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2014년 마이단 혁명 이후 이 프레임이 러시아 선전에 완전히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에 대해 설득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어를 홍보하고 유일한 국어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러시아 TV 송출 차단과 같이 러시아어가 희생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때때로 러시아 선전에서 "문화 대량 학살"로 표현되었다. 러시아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러시아인을 혐오하는 나치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는 프레임에 논거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 프레임의 주요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고 유지하는 동시에 러시아 자체에 대한 잠재적인 비판을 피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NATO를 포함한 러시아의 적이라고 인식되는 모든 세력을 ‘러시아와 러시아 문화 파괴를 목표로 하는 파시스트 또는 나치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전 프레임의 한 측면으로서 ‘대량학살’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치체제는 ‘악’이며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지속 선전하면서, 러시아에서의 정치적 변화는 오직 사회의 도덕적 저하(moral degradation of society)만을 초래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런 선전 프레임은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러시아 사회의 깊은 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며, 푸틴은 이를 국가정체성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확립된 사실을 과장하고 감정이 담긴 단어를 사용하여 선전 효과를 높인다. 특히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러시아에서는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 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전 효과가 배가된다.

나치 프레임은 주로 우크라이나와 관련하여 사용되는데, 서구(서유럽,

미국, NATO)를 파시즘이나 나치즘과 관련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더 은밀한 방식으로 제시된다. 나치즘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일반적으로 발트3국과 같은 구소련 공화국 등을 대상으로 사용된다. 한 가지 예는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 니콜라이 파트루셰프(Nikolai Patrushev)가 2018년에 발표한 성명이며, 그는 유럽, 특히 새로운 발틱의 회원국들이 나치 연합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프레임에서 러시아 국가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를 해방시키고 국가를 탈나치화함으로써 그들의 해방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저자는 러시아가 "나치", "파시스트", "대량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러시아 선전에서 우크라이나인을 비인간화하는 것이 러시아의 침공과 잔학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¹⁰⁾

Elizaveta Gaufman(2015)은 우크라이나인을 "파시스트"로 보는 러시아의 미디어 프레임에 초점을 맞추고 이 프레임이 문화적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Stephen D. Reese가 관찰한 것처럼 프레임은 "그냥 독립된 개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문화의 그물'(web of culture)에 내재되어 있고 사회적 의미의 공유 저장소를 활용한다.¹¹⁾ Gaufman은 '파시스트' 프레임이 러시아의 전쟁 기억과 정체성의 특징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맥락에서 "파시즘"과 연결된 독특한 의미와 연관성으로 인해 이 프레임은 러시아인들에게 실존적 위협의식을 구축하는 데 특히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¹²⁾

10) Fortuin, E. (2022). "Ukraine commits genocide on russians": the term "genocide" in russian propaganda. *Russian Linguistics*, 46(3), 313-347.

11) Stephen D. Reese, "Finding Frames in a Web of Culture. The Case of the War on Terror", in *Doing News Framing Analysis: Empi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eds. Paul D'Angelo and Jim A. Kuypers (New York and Abingdon:Routledge, 2010), 18.

12) Gaufman, E. (2015). World War II 2.0: Digital memory of fascism in Russia in the aftermath of Euromaidan in Ukraine. *Journal of Regional Security*, 10(1), 17-35.

Makhortykh와 Sydorova는 우크라이나의 갈등국면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어떻게 상황을 프레이밍하는지를 연구하였다. 러시아의 대표적 SNS 사이트인 브콘탁제(Vkontakte)의 친우크라이나 및 친러시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시각적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폭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각기 갈등이 어떻게 표현되고 해석되었는지 조사하였다¹³⁾. 갈등의 시각적 프레이밍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Fahmy and Kim, 2008 ; Neumann and Fahmy, 2012 ; Parry, 2010)는 신문과 같은 뉴스 매체의 데이터에 의존하지만, Makhortykh와 Sydorova는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브콘탁제(Vkontakte)의 시각적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는 친우크라이나와 친러시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부각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제3항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러시아 정책 연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비코프(2020)는 R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푸틴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¹⁴⁾ 비코프는 러시아 대통령이 의회에서 실시한 연설의 텍스트 모음을 연구하

13) Makhortykh, M., & Sydorova, M. (2017). Social media and visual framing of the conflict in Eastern Ukraine. *Media, War & Conflict*, 10(3), 359-381. <https://doi.org/10.1177/1750635217702539>

14) Вуков I.(2020)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сланий в России с помощью методики text mining" DOI: <https://doi.org/10.26577/jpcp.2020.v73.i3.08>

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정치적 담론(예: 대통령 메시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이 연구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러시아, 권력, 국가라는 세 가지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연설하는데 주안을 두며,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이념이 러시아 공공 정책의 핵심 개념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Ptaszek 등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 통신사 RIA Novosti(RIAN)와 우크라이나 통신사 (UNIAN)가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한 뉴스의 프레임링을 분석하였다.¹⁵⁾ 상기 연구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하여 더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러시아 정권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정보심리전을 위한 내러티브를 구성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제4항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

본 논문은 기존의 논문들과 달리 우선 러시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푸틴의 연설, 성명, 기자회견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러시아와 연관된 논문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언론이나 텔레그램 등의 소셜 미디어에서 어떻게 전쟁 상황이 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국내 논문들은 푸틴의 언급을 분석한 논문은 없으며, 주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북한 신년사 또는 노동신문의 내용을

15) Ptaszek, G., Yuskiv, B., & Khomych, S. (2023). War on frames: Text mining of conflict in Russian and Ukrainian news agency coverage on Telegram during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2022. *Media, War & Conflict*, 0(0). <https://doi.org/10.1177/17506352231166327>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선전 프레임 연구하기 위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설과 기자회견 등을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차별점을 가진다.

둘째, 푸틴이 언급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와 더불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정량적 기법을 가미하였다. 각 단어를 학습을 통해 벡터화하는 워드 임베딩이라는 기법을 활용하였고, 단어 벡터 간 유의미한 유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단어의 의미를 수치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인 워드투벡터(Word2Vec)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선전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는지 양적 분석기법을 적용해 확인해 보았다.

셋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한 선전정책을 ‘프레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푸틴의 언급에 나타난 특징을 ‘네이밍’, ‘스토리텔링’ ‘기억 소환’ 등의 프레임 전략으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러시아 프로파간다 전략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푸틴이 구성하는 프레임 전략의 의도는 무엇이며 2022년 이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국면에서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이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관계와 전쟁의 향배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전망해 보았다.

제 2 장 연구의 설계

제1절 연구 대상 및 범위

러시아 대통령실 홈페이지(en.kremlin.ru) 게재된 자료는 연방의회 연설 (Addresses to the Federal Assembly), 주요 이슈들에 대한 성명 (Statements on Major Issues), 실무면담 및 컨퍼런스(Working Meetings and Conferences), 연설(Addresses), 각계 단체 대표들과의 면담 (Meetings with Representatives of Various Communities), 기자회견 (News Conferences), 인터뷰(Interviews) 등을 망라한다.

러 대통령실 홈페이지(<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에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시점부터 최근까지(2021년 10월~2023년 9월) 게재된 정보를 Java 및 Jsoup 이라는 크롤링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러시아 대통령실 홈페이지(en.kremlin.ru) 게재 내용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상기 자료가 가장 공신력있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푸틴의 연설이나 국내외 인사들과의 접견시 언급한 내용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진 인식과 프로파간다의 방향성을 반영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의 푸틴 언급을 분석하기 위해 침공일(2022.2.24.) 직전인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의 내용을 분석 범위로 설정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이미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왔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러시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를 크롤링하여 총 630개의 데이터 파일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제2절 연구 주제의 설정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푸틴의 주요 언급을 분석함으로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프레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는 전쟁 상황을 전략적으로 '프레이밍'하여 특정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여 러시아군·적국은 물론 양국 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고취하여 침공의 명분을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 군대의 사기를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주민들이 겪는 참상을 부각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자국의 정보심리전 목적을 달성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정교하게 설정된 프레임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책 프레임 연구들의 논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에 주안을 두고 러시아의 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 전쟁 국면에서 국민의 정책순응 및 지지도를 높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혐오를 주입하기 위해 어떠한 '네이밍(naming)' 전략을 사용하는가?
- ii) 프레임 전략의 효과를 높이고 현상을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하고 있는가?

iii) 프레임 전략을 각인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sensitize)하기 위해 어떠한 사건과 기억(memory)을 결부시키고 있는가?

제3절 연구의 구성

텍스트 마이닝을 비롯한 자료 분석은 통상적으로 4단계의 분석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첫째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데이터를 찾는 수집 단계이다. 둘째, 수집한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이 이루어지는 처리 단계이다. 셋째, 수학적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앞서 전처리를 통해 가공된 데이터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추출단계이다. 넷째, 추출한 정보의 의미를 분석하는 분석 단계이다..¹⁶⁾

본 연구는 러시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시점부터 최근까지(2021년 10월~2023년 9월) 게재된 영문 정보를 Java 및 Jsoup 이라는 크롤링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총 630개의 데이터 파일을 확보하였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명사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자료는 11,117종의 명사가 사용되었으며, 최소값 1, 최대값 5,325로서 총합은 327,192개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다 빈출 단어는 러시아(russia)로서 615건의 문서에서 5,325번 노출되었고, 연도(year, 5위), 지역(region, 9위), 오늘(today, 10위), 시간(time, 13위) 등의 중립적 성격의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안보(security)가 280건의 게시물에서 1239회 다수 노출된 점이 주목되었다. 빈출 단어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관련 언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해 보았다.

16) 이가영. (2020). 『경제연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한 북한 경제정책 변화 연구.

그러나 단순한 빈도 조사로 정확한 의미 맥락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와 더불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정량적 기법을 가미하였다. 각 단어를 인공 신경망 학습을 통해 벡터화하는 워드 임베딩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였고, 단어 벡터 간 유의미한 유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단어의 의미를 수치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인 워드 투벡터(Word2Vec)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프레임의 특징을 파악하고, 분류하였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이 우리 안보정책에 갖는 함의와 시사점도 검토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1절 빈도 분석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러시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를 크롤링 방식을 사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총 630개의 데이터 파일을 확보하였다. 대통령실 자료는 연방의회 연설(Addresses to the Federal Assembly), 주요 이슈들에 대한 성명(Statements on Major Issues), 실무면담 및 컨퍼런스(Working Meetings and Conferences), 연설(Addresses), 각계 단체 대표들과의 면담(Meetings with Representatives of Various Communities), 기자회견(News Conferences), 인터뷰(Interviews) 등을 망라한 것이다. 630개의 파일을 명사만 추출하여 별도 파일에 문서별로 저장하였다.

< 표 4-1-1 > 러 대통령실 수집 데이터 개요

구분	데이터
명사 개수	11,117
최소값	1
최대값	5,325
평균	29.43
총 단어	327,192

추출한 자료의 통계를 통해 11,117 종의 명사가 사용되었으며, 최소값 1, 최대값 5,325로서 총합은 327,192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다 빈출 단

어는 러시아(russia)로서 615건의 문서에서 5,325번 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국가(country)는 524건의 문서에서 4,368번 노출이 되었다. 연도(year, 5위), 지역(region, 9위), 오늘(today, 10위), 시간(time, 13위) 등의 중립적 성격의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안보(security)가 280건의 게시물에서 1239회 다수 노출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푸틴이 안보를 최우선의 국가정책 목표로 간주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안보상황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국민들의 결집을 도모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우크라이나 또한 38번째로 총 133건의 게시물에서 994회 노출되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이슈로 지속 거론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economy)는 30번째(302건 1139회), 산업은 35번째(273건 1048회), 시장(market)은 45번째(234건 883회), 에너지가 58번째(209건 821회)로 다수 노출되는 등 경제·산업 분야의 언급이 많았던 것을 보여준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가 시행되면서 푸틴이 러시아의 경제가 건재함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관리 정책을 거론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단어 빈도를 중심으로 하는 텍스트 분석은 그 단어가 쓰이는 맥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의 전체 논의 구조내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 내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제2절 워드투벡터(Word2Vec) 분석

제1항 워드투벡터(Word2Vec) 분석 활용을 위한 코딩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

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적절히 숫자로 변환해야 한다.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연어 처리의 성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어를 수치화 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최근에는 각 단어를 인공 신경망 학습을 통해 벡터화하는 워드 임베딩이라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은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단어를 밀집 표현으로 변환한다. 우선 희소 표현(Sparse Representation)은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의 인덱스의 값만 1이고, 나머지 인덱스에는 전부 0으로 표현되는 벡터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벡터 또는 행렬(matrix)의 값이 대부분이 0으로 표현되는 방법을 희소 표현(sparse representa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희소 벡터의 문제점은 단어의 개수가 늘어나면 벡터의 차원이 한없이 커진다는 점이다. 희소 표현과 반대되는 밀집 표현(dense representation)은 벡터의 차원을 단어 집합의 크기로 상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설정한 값으로 모든 단어의 벡터 표현의 차원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더이상 0과 1만 가진 값이 아니라 실수 값을 가지게 되며, 단어를 밀집 벡터(dense vector)로 표현하는 방법을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이라고 한다. 워드 임베딩 방법론으로는 LSA, Word2Vec, FastText, Glove 등이 있으며, 단어 벡터간 유의미한 유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단어의 의미를 수치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 방법이 워드투벡터(Word2Vec)이다.

Word2Vec의 학습 방식에는 CBOW(Continuous Bag of Words)와 Skip-Gram의 2가지 방식이 있다. CBOW는 주변에 있는 단어 입력으로 중간에 있는 단어들을 예측하는 방법이고 Skip-Gram은 중간에 있는 단어들을 입력하여 주변 단어들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CBOW는 주변 맥락의 단어(context word)들을 통해서 중심 단어(center word)를 예측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중심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앞, 뒤로 몇 개의 단어를 볼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범위를 윈도우(window)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윈도우 크기가 n이라고 한다면, 실제 중심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 참고하려고 하는 앞, 뒤 주변 단어의 개수는 2n이 된다.

본 연구의 Word2Vec 분석을 위해 임베딩된 벡터의 차원인 vector_size는 100,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 window는 5, 빈도가 적은 단어 들은 학습하지 않도록 단차 최소 빈도수인 min_count는 5로 제한하여 코딩하였다. Word2Vec의 학습 방식은 CBOW(Continuous Bag of Words)로 설정(sg=0)하였다. 이 방법으로 학습하여 각 단어의 최상위 연관어 50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코딩하였다.

Word2Vec를 활용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프레임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서방’ 등의 용어에 대한 연관어를 분석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칭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침공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 위주로 연관어를 분석하면서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을 분석하였다.

제2항 ‘우크라이나’ 관련 키워드 연관어 분석

푸틴의 연설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총 133건의 게시물에서 994회 노출되며 중요한 이슈로 지속 거론된 것을 확인하였다. Word2Vec 분석을 통해 푸틴의 언급 내용중에서 ‘우크라이나’라는 키워드가 어떤 의미 맥락에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여 보았다.

연관도가 가장 높은 50개의 단어를 파악하였을 때 가장 높은 연관도를 가진 단어는 쿠데타(‘coup’)로 0.93의 연관도를 보였으며, 그 뒤로 키예프(kiev), 분쟁(conflict), 정권(regime), 서방(west), 시도(attempt), 나토

(nato), 안티-러시아, 대치(confrontation), 공세(aggression), 비군사화(demilitarisation), 위협(threat), 긴장(tension), 돈바스(donbass), 대량학살(genocide), 위기(crisis), 테러리스트(terrorist), 나치즘(nazism), 긴장고조(escalation) 등이 뒤를 이었다.(부록 참조)

이를 통해 우리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점을 아래와 같이 추론할 수 있다. i) 무엇보다도 쿠데타가 제일 연관도가 높은 점으로 보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가 합법적인 야누코비치 정부를 몰아내고 서방의 영향력 하에서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빼앗았으며, 합법성과 정통성이 결여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ii) 우크라이나는 서방·나토와 함께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고 지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대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iii)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대량학살의 만행을 저지르는 나치 테러리스트 세력이기 때문에 비군사화(demilitarisation)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푸틴은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고 돈바스 친러시아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군사작전이 불가피했다면서 침공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징하는 키예프(Kiev)라는 단어와 연관된 용어들을 확인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쿠데타(coup)가 가장 연관성이 있는 단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쿠데타(coup) 다음으로 우크라이나(ukraine), 정권(regime), 갈등(conflict), 돈바스(donbass), 테러리스트(terrorist), 공세(aggression), 대량학살(genocide), 나치즘(nazism), 공격(attack), 적(enemy), 위협(threat) 등의 부정적 단어가 뒤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주민을 공격하고 대량학살을 일삼는 나치즘을 신봉하는 테러리스트라고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3항 ‘서방(west)’ 용어 연관어 분석

우크라이나와 연관된 ‘서방’(west)이라는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용어들은 시도(attempt), 실수(mistake), 엘리트(elite), 위기(crisis), 분쟁(conflict), 압박(pressure), 안티-러시아(anti-russia), 우크라이나(Ukraine), 쿠데타, 위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방 엘리트들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반러시아 젤렌스키 정부를 통해 러시아에 압력을 행사하고 위기를 조장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는 의미 맥락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항 네오-나치 (neo-nazi) 및 반데라(bandera)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징하여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네오-나치’(neo-nazi)의 연관어를 확인해 보았다.

네오나치와 문맥상 연관된 단어로는 민족주의자(nationalist), 반데라(bandera), 히틀러(hitler), 영웅(heroics), 인질(hostage), 거짓말(lie), 추종자(follower), 도발(provocation), 러시아 혐오(russophobia), 급진주의자(radical), 배반(betrayal), 범죄자(criminal) 등의 부정적 표현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 푸틴은 반복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히틀러의 추종자이자 민족 반역자였던 ‘반데라’를 국가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으며, 이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네오나치·범죄자 세력임을 증명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스테판 반데라(Stepan Bandera, 1909.1.1.~1959.10.15.)는 우크라이나 민

족주의 조직 (OUN-B) 의 급진적 무장 세력의 우크라이나 극우 지도자였다. 반데라는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물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을 하다 수차례 투옥되고 종신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1941년 독일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르비우(Lviv)에서 우크라이나 국가의 창설을 발표하고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나치와 협력하기도 하였다. 특히 1932~1933년 우크라이나 지역은 소련 스탈린의 농장 집단화 정책에 반발하다가 250만명 이상이 아사하는 ‘홀로도모르’ 대기근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독소전쟁 발발시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독일을 지지하는 일부 이유가 되었다.¹⁷⁾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반데라는 가족과 함께 서독에 정착했으며, 1959년 뮌헨에서 구소련 KGB 요원에 의해 암살되었다.

상당수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를 우크라이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 인물로 인식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주민들은 그를 파시스트이자 나치에 부역한 인물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특히 러시아는 반데라를 민족 반역자라고 선전해 왔으며, 최근 푸틴의 언급을 워드임베딩 기법을 활용해 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반데라’의 가장 최우선 연관어가 ‘히틀러(hitler), 추종자(follower), 네오-나치(neo-nazi)’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절 러시아의 ‘프레이밍’ 전략 분석

본 연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기 푸틴의 언급을 분석함으로써

17)

<https://ru.wikipedia.org/wiki/%D0%93%D0%BE%D0%BB%D0%BE%D0%B4%D0%BE%D0%BC%D0%BE%D1%80> (검색일: 2023.10.15.)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인식과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프레임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앞서 임베딩 분석 기법을 통해 푸틴이 젤렌스키 정부가 서방의 영향력 하에서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정통성 없는 정권임을 선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서방·나토와 함께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고 지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대량학살을 저지르는 나치 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비군사화(demilitarisation)을 위한 특수군사작전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방’(west)이라는 용어가 젤렌스키 정부를 조장하여 러시아에 압력을 행사하고 위기를 조장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는 의미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네오-나치’(neo-nazi)와 ‘히틀러 추종자·범죄자’ 집단으로 비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은 아래와 같은 의도와 목적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1항 NATO에 전쟁 발발 책임 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에 관한 가장 대표적 주장은 미국 시카고대학 미어세이머(Mearsheimer)의 것으로서, 그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이탈해 NATO에 통합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한다.¹⁸⁾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NATO 동진 정책을 고수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러시아가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

18) Mearsheimer, J. J. (2014).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Foreign Aff.*, 93, 77.

생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그 동맹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야기한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미어세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는 자신의 생존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하며, 이는 강대국들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해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현상 변경'을 추구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를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왈츠를 중심으로 한 많은 학자들이 무정부적 국제체제 하의 강대국을 현재의 세력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어적 지위 유지자(defensive positionalist)'로 보았던 것에 반해 미어세이머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세력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격적 현상 변경 국가(offensive revisionist)'의 행위라고 주장하였다.¹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14년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마이단 혁명의 결과로 축출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됐다고 비난해 왔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과 나토(NATO) 가입 추진 노선에 반대해 왔으며, 러시아의 침공을 발표하면서 나토가 "국가로서 러시아의 역사적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푸틴은 러시아의 목표는 괴롭힘과 대량학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및 비나치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어세이머의 주장과 유사하게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가능성과 NATO의 동진이 러시아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요인임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2021.10.21.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NATO

19) 설인호 and 이택선. (2012). 「미어세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21세기 동북아 국제 질서 : 방어, 공격적 현실주의 논쟁과 공격적 현실주의 재평가」. 『분쟁해결연구』,10(2), 123-156.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역내 군사적 확장은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러시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²⁰⁾ 2022.2.21. 연방안보위 회의에서는 NATO가 부크레슈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가입을 약속(open door policy)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게 된다면 집단방위조약(5조)에 의해 러시아의 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2.12.21 국방부 위원회 회의(Meeting of Defence Ministry Board)에서는 상당수 NATO 회원국의 군사 무기가 러시아에 대항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2023.6.13. 개최된 중군기자와의 대화(Meeting with war correspondents) 계기에 푸틴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을 통해 NATO로 인해 전쟁이 발발했다며 책임을 직접적으로 전가한다. “특별군사 작전은 NATO의 레드라인 침범에 대한 대응임. NATO는 우리의 요구와 대화제외에 응하지 않았으며, 무력을 사용토록 만들었음. 그들은 ‘푸틴이 전쟁을 시작했고 침략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침략자이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²¹⁾

2023.7.13.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분명히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되며,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위협이 특수군사 작전의 이유 중 하나임을 재강조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안보를 보장

20) But the threat you just mentioned – is quite important to us. And you are right that formal NATO membership may never happen, but military expansion on the territory is already underway, and this really poses a threat to the Russian Federation, we are aware of this.

21) Is the special military operation itself not a response to them crossing these lines? This is the first and the most important point. We said many times “Do not do this, let's do that, we are ready for talks.” In the end, they prompted us to try to use force to end the war that they started in 2014. They keep telling us, “You started the war, Putin is the aggressor.” No, they are the aggressors, they started this war, and we are trying to stop it, but we are compelled to do so with the use of the Armed Forces.

할 권리가 있고 러시아는 이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는 러시아의 안보를 희생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하면서 이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 합의된 '안보 불가분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가능성과 NATO의 동진이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였다.

제2항 '나치' 네이밍 : 젤렌스키 정부에 '나치' 프레임 씌우기

'나치' 용어(Nazi, Nazism, neo-Nazi)는 81개 문서에서 258번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를 '나치'로 규정함으로써 침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였다. 또한 러시아인들에게 깊게 각인된 전쟁의 참상과 아픈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를 도모하였다.

예를 들어 지난 해 11월 15일에 게재된 승리조직위와의 회의(Meeting of Pobeda (Victory) Organising Committee)결과에서는 '나치'에 대한 표현이 27회나 사용되었다. 우선 "특정 국가들이 러시아를 분열, 약화시키고 주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욱 공세적 시도를 벌이고 있다"²²⁾는 식으로 러시아의 외부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는 소련 국민에 대한 대량학살을 시도했고, 최근 확인된 나치의 문서들은 레닌그라드 포위 공격을 통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몰살시키려던 것이 확인되었다며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중요 격전지였던 마리우폴과 멜리토폴 지역이 2차 세계대

22) "Attempts made by certain countries to rewrite and reshape world history are becoming increasingly aggressive, ultimately and obviously seeking to divide our society, take away our guiding lines and eventually weaken Russia and influence its sovereignty - essentially shake its sovereignty"

전 시기에 나치와의 항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고, 푸틴은 마리우폴과 멜리토폴에 군사 영광의 도시라는 명예 칭호를 수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푸틴은 과거 나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더불어, 오늘날까지도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나치즘의 본질을 기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반복하여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푸틴은 과거 두려움과 비겁함으로 인해 나치와 협력했던 자들은 그들의 배신행위를 ‘사이비 민족주의’(pseudo-nationalist)인 것으로 가장했는데, 이것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형적 모습이며, 반데라(Bandera) 프로세스와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²³⁾

또한 2022년 9월 7일 동방경제포럼 회의시 언급을 통해 푸틴은 키이우 현 정권이 ‘반데라’와 같은 사람들을 국가적 영웅으로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켈렌스키 정부가 네오나치라고 규정하였다.²⁴⁾ 우크라이나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고, 그들이 돈바스 지역에서 많은 테러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3항 ‘반데라’ 네이밍 : 우크라이나 정부·군인을 ‘네오-나치’로 명명

반데라 관련 용어는 21개의 텍스트에서 42번 사용되었다. 2022.11.25. 특별군사작전 참전군인 어머니와의 면담(Meeting with mothers of military personnel-participants in the special military operation) 계기 푸틴은 “2014년 쿠데타로 우크라이나에서 정권을 잡은 세력은 히틀러 추

23) “Those who collaborated with the Nazis out of fear, out of cowardice also have an ambitious task: to cover up this betrayal of the interests of their peoples with pseudo-nationalist interests - this is typical of today's people from that same Ukraine. All these events fit very well within the Bandera process.”

24) “we have always pointed out the signs of neo-Nazism in Kiev's current government. Neither Russia nor any other civilized country promotes Nazis or radical Nazi-like nationalists to national hero status. That's the difference.”

종자였던 반데라를 국가영웅으로 기리고 있는 네오나치 세력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군인들이 특별군사작전에서 오늘날 싸우고 있는 실체”라고 주장한다.²⁵⁾ 올해 6월 1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전체회의(Plenary session of the 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에서는 홀로코스트(Holocaust)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 150만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반데라 추종자들의 손에 살해당했다고 주장하였다.²⁶⁾ 푸틴은 반데라는 반유대주의자 네오나치였으며, 히틀러의 추종자였던 반데라를 이념적으로 옹호하는 네오나치들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영웅으로 추대받고 있으며, 반데라를 추종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네오나치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비나치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중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와 군인 모두가 반데라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극단주의자인 것처럼 과장 선전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대에 ‘나치 부역자, 민족 반역자’의 이미지를 씌워 우크라이나에 대한 혐오적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

반데라이트(Banderites) 라고 불리는 반데라 추종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인과 유대인 민간인을 학살한 책임이 있다. 반데라는 역사적 공과

25) “if there had not been a coup d’état in Ukraine in 2014, nothing would have happened, 2014 they actually took control of the authorities and administrations in fact. And who are they? Bandera followers. And what are Bandera followers? Neo-Nazis. Bandera was Hitler's follower, he shot Russians. And today they have raised these people to the rank of national hero; that is what and who our soldiers are fighting today in the special military operation.”

26) “neo-Nazis, followers of Hitler, have been raised on pedestals as today’s heroes in Ukraine. The Holocaust means killing 6 million Jews, one and a half million of which were killed in Ukraine, and primarily at the hands of Bandera followers.”

가 있는 인물로서 그간 우크라이나에서도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왔으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및 2022년 침공을 겪으며 반데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라쭌코프(Razumkov) 연구소가 2022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응답자 2,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의 49.6%는 Stepan Bandera의 활동이 우크라이나에 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11.1%가 다소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1년 다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31.1%이고 다소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31.7%였던 것에 비해 전쟁 발발 이후 우호적 평가가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지역적 관점에서 답변을 고려하면 반러 성향이 강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 72.7%가 반데라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부 지역은 51.3%, 남부 지역은 19.5%, 동부 지역은 30.4%가 긍정 평가하였다. 반대로 부정적 평가는 반러 성향이 강한 동부에서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²⁷⁾

러시아는 반데라의 나치 협조 및 유대인 민간인 학살과 연관되었던 이력을 집중 비난해 왔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시에도 반데라를 거론하며 비나치화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인 모두가 반데라를 추종하는 극단주의자인 것처럼 포장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침략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념적 기초로 활용하고 있다.

정책을 둘러싼 싸움에서 승리하려는 정치 행위자들은 자신들에게 수사적 우위를 제공하는 문제의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대통령이든, 이익 집단이든, 정책 기업가이든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 행위자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는 대중이 선호하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을 생성하는 것

27) <https://ru.interfax.com.ua/news/general/865328.html> (검색일: 2023.10.14.)

이다. 이런 관점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히틀러 추종자였던 반데라를 옹호하는 세력’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프레이밍 전략의 강점은 러시아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고려사항을 강조함으로써 수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는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들의 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 박힌 2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의 승리를 위한 국민결집을 도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러시아가 반데라를 비난하는 정보를 확산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도리어 반데라의 나치 협력행위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였음을 참작하여 인식하려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반데라의 일부 문제적 행태에 대해서도 두둔하려는 우호적 시각이 점증하고 있다.

제4항 ‘봉쇄’·‘대량학살’ 스토리텔링 : 2차 세계대전 트라우마 소환

현 전쟁을 나치즘과의 투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과거 전쟁의 기억을 소환해 국민들의 공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봉쇄’(blockad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봉쇄라는 단어는 17건의 문서에서 총19회 노출되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봉쇄된 상황을 언급하고, 돈바스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봉쇄’(Блокада, blockade)와 포격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싸워왔다는 것은 러시아 국민들의 잠재 의식속에 깊이 각인된 ‘레닌그라드 포위전’(Блокада Ленинграда)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 프레임은 러시아인들에게 곧바로 전쟁의 참상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주입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레닌그라드 포위전 또는 레닌그라드 봉쇄는 1941년 9월 8일 - 1944년 1월 27일간 제2차 세계 대전 중 동부 전선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옛 명칭인 레닌그라드에서 발발한 독일군의 장기 군사 작전이다. 포위전은 1941년 9월 8일 마지막 육상 연결 통로가 끊어지면서 시작되었다. 레닌그라드 주민들은 872일 동안 고립되어 처절한 굶주림과 끊임 없는 폭격을 참아내며 목숨을 걸고 항전했다. 이 전투는 역사상 가장 길고 참혹한 포위전이었을 뿐 아니라 약 4백만명의 대량 사상자를 초래한 시가전 전투이다.

‘봉쇄’라는 언급은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처절한 항전의 역사이자 상처의 기억을 소환하며, 이를 통해 돈바스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군사작전’의 정당성을 확산할 수 있다. “러시아와 민간인, 노인, 여성, 어린이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네오나치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군인들을 위해 목념해달라”²⁸⁾는 언급을 통해서도 이번 침공이 2차세계대전과 같은 목적을 지닌 전투라는 점을 잠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 해 2월 21일 연방안보위와의 회의시 언급을 통해 푸틴은 “지난 몇 년간 돈바스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인 포격과 봉쇄로 고통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하였다.²⁹⁾ 올해 2월 9일 개최된 항공산업 대표와의 면담(Meeting with representatives of the aviation industry)시 언급을 통해서도 돈바스 주민들이 봉쇄속에서 중화기 공격을 감내하며 지내왔음을 강조하였다. ³⁰⁾ 올해 2월 21일 연방의회 연설(Presidential Address to

28) “would like to ask you to pay your respects to our fellow soldiers who were killed in the attacks of neo-Nazis and raiders, who gave up their lives for Russia, for civilians, the elderly, women and children.”

29) “All these years - I want to stress this - all these years, the people living on those territories have been literally tortured by constant shelling and blockades.”

30) “Since 2014, in violation of all the agreements reached, all the commitments undertaken, the regions of Donbass were basically subjected to a blockade. Heavy military equipment was used against them and large military operations were carried out.”

Federal Assembly)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주민들이 네오나치의 우크라이나 켈렌스키 정권하에서 모국어인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못하며 탄압을 받아 왔다면서 “돈바스 지역은 ‘봉쇄’속에서 지속적인 포격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계속 항전해 왔다”고 묘사하였다.³¹⁾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이유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세력의 ‘대량학살’을 거론하면서, 나치 정부로 묘사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인구를 탄압하고 대량 학살했다고 주장한다. 2022년 3월 5일 푸틴은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는 “8년 동안 강제로 굴복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1) “Since 2014, Donbass has been fighting for the right to live in their land and to speak their native tongue. It fought and never gave up amid the blockade, constant shelling and the Kiev regime’s overt hatred.”

제4절 러시아 프레이밍 전략의 파급영향 전망

제1항 우크라이나 대상 강경 군사조치 정당화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으며 나치 파시스트와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푸틴은 이것이 전쟁이 아니며, ‘탈나치화’를 위한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선언하였다. 러시아는 서방을 ‘실존적 위협’이라며 ‘대량학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가 필요하다고 프레이밍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한 군사적 조치를 정당화하는데 활용된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9월 21일 부분적 군사동원령을 발표했고 러시아는 예비역 대상으로 30만 명을 징집하였다.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동한 것은 소련 시절인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있는 예외적 군사조치였다.

베리 부잔(Barry Buzan)과 올레 위버(Ole Wæver)로 대표되는 코펜하겐 학파(Copenhagen School of security Studies)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특정 문제나 대상이 어떻게 안보위협이 되는지를 분석하는 안보화 이론(securitization theory)을 개발하였다.

안보화 이론은 안보 문제가 특정 이슈가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설·발화(speech) 행위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보화 행위자’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어떤 이슈나 대상을 안보문제라고 선언할 권한을 가진 정치 지도자, 정부기관 또는 기타 영향력 있는 개인 또는 그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즉, 정치적 행위자나 당국에 의해 어떤 것이 실존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프레이밍될 때 안보문제가 구성될

수 있다. 이 프레임에는 특정 문제가 실존적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청중에게 설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이 포함된다.³²⁾

안보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i) 우선 어떤 문제가 식별되어 안보 위협으로 분류된다. ii) 안보화 행위자(정부, 정치인 등)는 이 문제를 매우 긴박하고 잠재적인 재앙적 이슈라고 설명하여 청중(예외적 조치 시행의 필요성을 수용하는 대상)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iii) 마지막으로 성공할 경우 문제는 안보 문제로 간주되며 예외적 조치가 정당화된다. 반대로 어떤 문제가 탈-안보화 (Desecuritization)되는 과정에는 문제의 위기 수준이 축소되거나 안보위협으로서의 지위를 해제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가 문제 인식을 변경하고 긴급성과 예외적 조치의 필요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푸틴과 여타 영향력있는 러시아 권력엘리트들은 서방을 '실존적 위협'으로 프레임하고, 러시아 주권 및 국민보호를 위해서는 '비나치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푸틴은 2020.2.24.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무책임한 서방 정치인들이 계속 꾸준히 무례하게 조장한 근본적인 위협"을 거론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확장이 러시아로서는 "생사의 문제"라고도 했다. 또한 예외적 조치로서 '특수군사작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정당성을 확산하고 있다. 푸틴의 지속적인 언급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는 핵심적 안보 위협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며, 예외적인 군사 정책과 조치들이 국민들에게 수용되고 있다. 향후에도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은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 시설 공격, 추가 동원령 등과 같은 군사 조치를 정당화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특히 푸틴이 서명한 '러시아연방의 핵

32) Buzan, B., Wæver, O., & De Wilde, J. (1998).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Lynne Rienner Publishers.

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는 대통령령(2020.6)은 핵무기를 "전적인 억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4가지 사용 조건을 제시한다. 적이 러시아의 영토 또는 동맹국을 핵무기나 WMD로 공격할 경우, 러시아나 동맹국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러시아의 핵심 정부·군사 시설이 피격받아 핵전력 대응 행동이 약해질 경우,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받아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는 경우 등이다.

향후 러시아는 서방의 군사적 위협이 국가존립을 위협한다고 계속 선전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논리로 활용하는 한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여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견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제2항 우크라이나 혐오가 정전협상 장애요인으로 작용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와 프레임 전략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혐오를 불러 일으킨다. 특히 우크라이나 집권세력을 '나치'·'파시스트'와 동일시하는 프레임은 러시아의 대외정책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 결정자들이 국내의 혐오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강화된 대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국가에 대한 혐오가 국가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와 논문 중 하나는 Robert D. Putnam의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1988)이다. Putnam은 국제 협상과 대내 정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국내 정치에서의 공론과 감정이 국가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제

시한다. Putnam은 양면게임(Two-Level Games) 이론을 소개하고, 국제 협상 과정에서 국가가 두 가지 수준의 게임을 진행하며, 국내 정치에서의 공론, 정책 이슈,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감정 등이 국가의 대외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국제적 협상은 국내정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국내정치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이론이다. 양면게임 이론이란 Level 1에서의 국제적 차원과 Level 2의 국내적 차원으로 나뉘어 있다. Putnam은 Win-Set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Win-Set이란 주어진 상황을 전제로 하여 국내에서 비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합의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국이 협상에서 국내적으로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상대국가에 대한 혐오가 높을 경우, 국제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비난 프레임은 혐오를 조장하여 러시아 국내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전을 포함한 국제협상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년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정치엘리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혐오 감정을 이용하여 국내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며, 혐오가 커질수록 갈등이 커지고 협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푸틴이 돈바스 주민 지원을 주요 이유로 들며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하며 ‘나치’ 프레임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정전 협상에서 돈바스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돈바스와 크림 지역을 포기하는 것은 러시아 국내적으로 비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ZOPA(Zone of possible agreement) 범위를 축소시키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을 수복하지 않고는 정전 협정에 합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혐오 수준이 높아질수록 러시아

내부적으로 강경파의 입김이 커지고 공세적 전쟁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러-우간 전황이 장기화되고 정전협상 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24년에도 양국이 소모적 공방전을 지속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종전을 위한 협상국면을 조성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러시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설, 성명, 면담내용, 기자회견 등을 워드임베딩 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푸틴이 우크라이나 정부 및 전쟁에 대해 가진 인식을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i) 우선 푸틴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정통성이 결여된 세력이며, 돈바스 주민을 공격하고 대량학살을 일삼는 나치즘을 신봉하는 테러리스트라고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i) 또한 우크라이나와 연관된 ‘서방’(west)이라는 용어 또한 젤렌스키 정부를 통해 러시아에 압력을 행사하고 위기를 조장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는 의미 맥락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iii)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네오-나치’ (neo-nazi), ‘반데라’ 옹호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이를 히틀러 추종 세력으로 선전하였고, 워드임베딩 기법을 활용해 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반데라’의 가장 최우선 연관어가 ‘히틀러(hitler), 추종자(follower), 네오-나치(neo-nazi)’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러시아가 구사한 프레임 및 전략은 아래와 같다. i)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가능성과 NATO의 동진이 러시아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요인임을 집중 강조하면서 NATO에 전쟁 발발의 책임을 전가하였다. ii) ‘나치’ 네이밍을 통해 젤렌스키 정부에 ‘나치’ 프레임을 씌워 침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삼는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하는데 활용하였다. iii) 우크라이나 정부·군인을 ‘네오-나치’, ‘반데라’

로 네이밍하여 우크라이나 집권세력이 히틀러 추종자라는 프레임을 확산하였다. iv) 돈바스 주민들의 ‘봉쇄’, ‘대량학살’을 강조하면서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의 레닌그라드 포위전의 참상과 기억을 소환하면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러시아가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였다.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i) 우선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실존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프레임될 때 안보문제(securitization)가 구성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 푸틴 정부는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군사 동원,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 시설 대규모 공격, 나아가 전술핵무기 사용과 같은 예외적 강경 조치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ii)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혐오가 향후 정전 협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은 우크라이나 집권세력을 ‘나치’·‘파시스트’와 동일시하여 혐오를 불러 일으킨다. 2024년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정치엘리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혐오 감정을 이용하여 국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며, 혐오가 커질수록 갈등이 커지고 협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푸틴이 돈바스 주민 지원을 주요 이유로 들며 ‘특별군사작전’을 시각하며 ‘나치’ 프레임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돈바스와 크림 지역을 포기하는 것은 러시아 국내적으로 비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ZOPA(Zone of possible agreement) 범위를 축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프레임 전략으로 인해 러시아 국민들의 혐오 수준이 높아질수록 러 내부적으로 강경파가 득세하고 공세적 정책이 지지를 받으면서 러-우간 전황이 장기화되고 정전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2024년 상반기에도 소모적 공방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전을 위한 협상국면을 조성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러시아 크렘린 홈페이지에 공개된 푸틴 대통령의 언급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프레임 전략을 공개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전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 전략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되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선전 전략 및 그에 관한 정부문건 등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푸틴 언급의 공개된 정보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러시아의 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및 군사문건, 정보기관의 전략, 핵심 당국자의 언급내용 등이 공개될 경우 추가로 확인되는 정보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푸틴의 언급 분석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프레임 전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1999년부터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푸틴이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 및 의사결정 구조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푸틴의 언급이 러시아의 정책적 특징과 방향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푸틴의 언급이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책 및 국민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러시아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

향후 푸틴의 언급이 시기별로 변화가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푸틴의 언급내용 뿐 아니라 여타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프레임 전략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3절 우리 안보정책에 갖는 시사점

19세기의 전략가 클라우제비치는 특정시대에 전쟁의 성격과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전쟁이란 ‘폭력을 사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³³⁾ 현대전에서는 사이버 공간과 미디어가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서도 푸틴의 메시지와 이를 확산 홍보하는 언론의 역할 등 심리전 전술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NATO의 “HANDBOOK OF RUSSIAN INFORMATION WARFARE”에 따르면 러시아에게 “정보 전쟁”은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며, 이 개념은 ‘심리 작전’(PsyOps)을 비롯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첩보 및 방첩, 허위조작 정보, 전자전, 통신 약화, 심리적 압력, 적 컴퓨터 기능 파괴 등을 포괄한다.³⁴⁾ 러시아는 자국에게 유리한 전장(battlefield) 정보와 내러티브(narratives)를 사이버 공간에 광범위하게 유포시키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 지지와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디지털 프로파간다(digital propaganda) 활동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³⁵⁾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또한 해외 정보 조작 활동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억압하고 자국이 선호하는 내러티브를 해외 정부, 엘리트, 기자 및 시민 사회가 받아들이는 구조를 조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³⁶⁾

33) 존 베일리스 등, 2009,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56-259

34) Keir Giles(2016), “Handbook of russian information warfare”. Rome : NATO Defense college.

35) 송태은. (2022)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내러티브·플랫폼·세 모기 경쟁」. 『국제정치논총』 제62집 3호, 213-255

36) 중국의 정보조작 및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관한 미 국무부의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2023.9)과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방북(2023.10) 등을 계기로 정치,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가 더욱 긴밀화하고 있다. 이들이 한반도 지역에 자국들에 유리한 국제정세를 조성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보 환경을 조작하는 공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꼭두각시’로 묘사하고, 러시아를 서방의 안보위협을 피해자로 부각하고 있는데, 한반도 안보현실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강압적 요구에 따라 외교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으며, 한미의 합동군사훈련 등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정찰위성 발사 등의 군사도발 행위 역시 한미가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기인한다”는 식의 프레임과과도 유사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서 보여준 프레임 전략은 지역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러·북간 군사적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간 군사협력에 돌리고, 한미일간 공조를 이간하며 우리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외국의 정보조작 행위가 더욱 거세질 우려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허위정보가 확산되자, 2022년 3월 EU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서비스되던 러시아의 RT(구 Russia Today)와 Sputnik과 같은 포털사이트를 차단했으며, 유튜브는 “60

다
<https://www.state.gov/gec-special-report-how-the-peoples-republic-of-china-seeks-to-reshape-the-global-information-environment/>(검색일: 2023.11.10.)

Minutes” and “Rosiya24”와 같은 러시아 프로파간다 채널을 폐쇄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 RT는 다양한 언어로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였고, 정보를 확산하기 위한 비디오를 게재하고 있다.³⁷⁾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는 북한의 심리전 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악의적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고 정보환경 조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 강구해야 할 것이다.

37) 러 허위정보 내용은 폴란드 대외관계연구소의 “Breaking Down Russian and Chinese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About the War in Ukraine” 제하 보고서를 참조. https://www.pism.pl/publications/breaking-down-russian-and-chinese-disinformation-and-propaganda-about-the-war-in-ukraine#_ftn9 (검색일 : 2023.11.1.)

- 참고 문헌 -

- 존 베일리스 등. (2009)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56-259
- 홍규덕. (2022). 「하이브리드 전쟁의 역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전략연구』 통권 제87호
- 김진호. (2020). 「중국 해양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 동북아논총』, 제25권 2호 (6월), pp. 89-90.
- 송태은. (2022) 「현대 전면전에서의 사이버전의 역할과 전개양상: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65(3), , pp.215-236
- 송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 : 평가와 함의」, 서울 : 독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
- 송태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내러티브·플랫폼·세 모으기 경쟁」. 『국제정치논총』 제62집 3호 (2022), 213-255
- 신범식·윤민우·김규철·서동주.(2021).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재우(2020).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사회과 교육과정 시기별 학술담

론의 특징 분석」.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이가영. (2020) 『경제연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한 북한 경제정책 변화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이지현. (2015) 「용호연합간 정책프레임 충돌과 정책변동 :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박성렬. (2017). 「북한 김정은 집권 전후의 분야별 정책변화 추이 분석-「로동신문」(2002~2016) 사설·정론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설인호 and 이택선. (2012). 「미어셰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 : 방어, 공격적 현실주의 논쟁과 공격적 현실주의 재평가」. 『분쟁해결연구』 10(2), 123-156.

조영갑. (1998) 『한국심리전략론』. 서울 : 팔복원. P. 26

심준섭, 김지수. (2011). 「갈등연구에서 프레임분석의 적용 가능성: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Mearsheimer, J. J. (2014).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Foreign Aff.*, 93, 77.

Roger E. Kanet. "Routledge handbook of Russian security" London :

Routledge, 2019.

Makhortykh, M., & Sydorova, M. (2017). Social media and visual framing of the conflict in Eastern Ukraine. *Media, War & Conflict*, 10(3), 359–381. <https://doi.org/10.1177/1750635217702539>

Вуков І.(2020)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сланий в России с помощью методики text mining” DOI: <https://doi.org/10.26577/jpcp.2020.v73.i3.08>

Ptaszek, G., Yuskiv, B., & Khomych, S. (2023). War on frames: Text mining of conflict in Russian and Ukrainian news agency coverage on Telegram during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2022. *Media, War & Conflict*, 0(0). <https://doi.org/10.1177/17506352231166327>

Keir Giles(2016), “Handbook of russian information warfare”. Rome : NATO Defense college.

Tuomas Forsberg & Christer Pursiainen (2017) The Psychological Dimension of Russian Foreign Policy: Putin and the Annexation of Crimea, *Global Society*, vol 31, no.2, 221

Inside Zelensky's Plan to Beat Putin's Propaganda in Russian-Occupied Ukraine(2023.6).

<https://time.com/6288904/ukraine-russia-propaganda-counteroffensive-zelensky/>(검색일: 2023.8.15.)

Van Hulst, M., & Yanow, D. (2016). From policy “frames” to “framing” theorizing a more dynamic, political approach.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46(1), 92-112.

Mintz, A., & Redd, S. B. (2003). Framing effec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ynthese*, 135, 193-213.

Fortuin, E. (2022). “Ukraine commits genocide on russians”: the term “genocide” in russian propaganda. *Russian Linguistics*, 46(3), 313-347.

Gaufman, E. (2015). World War II 2.0: Digital memory of fascism in Russia in the aftermath of Euromaidan in Ukraine. *Journal of Regional Security*, 10(1), 17-35.

Stephen D. Reese, “Finding Frames in a Web of Culture. The Case of the War on Terror”, in *Doing News Framing Analysis: Empi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eds. Paul D’Angelo and Jim A. Kuypers (New York and Abingdon:Routledge, 2010), 18.

Buzan, B., Wæver, O., & De Wilde, J. (1998).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Lynne Rienner Publishers.

Makhortykh, M., & Sydorova, M. (2017). Social media and visual framing of the conflict in Eastern Ukraine. *Media, War & Conflict*, 10(3), 359–381. <https://doi.org/10.1177/1750635217702539>

Вуков І.(2020)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сланий в России с помощью методики text mining” DOI: <https://doi.org/10.26577/jpcp.2020.v73.i3.08>

Keir Giles(2016), “Handbook of russian information warfare”. Rome : NATO Defense college.

https://www.pism.pl/publications/breaking-down-russian-and-chinese-disinformation-and-propaganda-about-the-war-in-ukraine#_ftn9

[부록 1] 단어 노출빈도 및 순위(크렘린 홈페이지)

순위	단어	노출 빈도	문서 수	순위	단어	노출 빈도	문서 수
1	russia	5325	615	51	Trade	856	236
2	person	4474	517	52	question	852	147
3	country	4368	524	53	child	849	168
4	President	3668	622	54	operation	834	267
5	year	3567	532	55	gas	834	132
6	Putin	3427	614	56	centre	827	253
7	Vladimir	3365	614	57	fact	826	277
8	mr	2556	423	58	energy	821	209
9	region	2363	425	59	Federation	817	280
10	today	2331	511	60	decision	789	257
11	state	2291	446	61	ministry	772	229
12	Development	2171	458	62	term	772	277
13	time	2161	476	63	opportunity	765	321
14	issue	1864	408	64	order	763	271
15	project	1780	352	65	day	761	297
16	work	1696	432	66	Defence	735	209
17	cooperation	1504	298	67	Union	734	168
18	percent	1489	302	68	law	721	185
19	World	1489	326	69	technology	716	226
20	area	1415	413	70	friend	716	280
21	colleague	1298	358	71	course	711	324
22	situation	1275	340	72	transport	709	205
23	Republic	1266	269	73	partner	707	236
24	government	1258	332	74	infrastructure	707	244
25	security	1239	280	75	construction	682	211
26	part	1215	392	76	plan	678	271

27	Minister	1205	273	77	Moscow	673	219
28	system	1190	289	78	production	670	225
29	way	1158	318	79	family	663	198
30	economy	1139	302	80	event	659	261
31	problem	1126	312	81	goal	656	247
32	meeting	1123	355	82	sector	656	230
33	company	1101	260	83	everyone	647	219
34	relation	1068	237	84	place	646	275
35	industry	1048	273	85	facility	634	213
36	business	1039	234	86	force	633	188
37	support	1035	341	87	future	632	255
38	Ukraine	994	133	88	Africa	627	81
39	Russian	985	325	89	organisation	627	212
40	thing	937	269	90	attention	626	271
41	result	929	335	91	city	626	187
42	programme	915	298	92	territory	625	212
43	service	914	286	93	Council	624	189
44	everything	898	290	94	point	624	196
45	market	883	203	95	investment	617	199
46	effort	881	339	96	agreement	604	178
47	interest	875	293	97	Power	594	209
48	level	871	326	98	United	589	154
49	life	869	293	99	war	585	149
50	number	862	308	100	matter	583	237

[부록 2] 워드투벡터 ‘우크라이나’ 연관어 순위

순위	단어	연관도
1	coup	0.9313387870788574
2	kiev	0.9137071371078491
3	conflict	0.9101992845535278
4	d'état	0.8708237409591675
5	west	0.8653863668441772
6	regime	0.8683319091796875
7	attempt	0.8569540977478027
8	nato	0.8388974070549011
9	czechoslovakia	0.8215845227241516
10	anti-russia	0.8185046911239624
11	nobody	0.8117533326148987
12	confrontation	0.8062613606452942
13	american	0.800153911113739)
14	washington	0.7993851900100708
15	anything	0.796859622001648
16	aggression	0.7958597540855408
17	anyone	0.7951000928878784
18	demilitarisation	0.7945281863212585
19	threat	0.7898996472358704
20	afghanistan	0.7898751497268677
21	negotiation	0.788261353969574
22	d'état	0.787712037563324
23	nothing	0.7852742075920105
24	tension	0.7836915254592896
25	minsk	0.7834036946296692
26	action	0.7755368947982788
27	georgia	0.7750141024589539
28	war	0.7722959518432617
29	guarantor	0.7718631625175476
30	clash	0.769426703453064

31	donbass	0.7685347199440002
32	side	0.7682000398635864
33	border	0.7648277878761292
34	genocide	0.7634497880935669
35	hotbed	0.7614542245864868
36	crisis	0.7611536979675293
37	terrorist	0.755534291267395
38	france	0.7542850375175476
39	poland	0.753911018371582
40	elite	0.7531548738479614
41	nazism	0.7484920024871826
42	bridgehead	0.7465280890464783
43	abm	0.7428401112556458
44	mistake	0.7425544857978821
45	response	0.7409020662307739
46	germany	0.7386094331741333
47	sweden	0.7379900217056274
48	us	0.7373526096343994
49	zelensky	0.7367141246795654
50	escalation	0.7366068363189697

[부록 3] ‘봉쇄’(blockade) 단어 빈도 : 17건 문서, 총19회

일자	텍스트	단어	빈도
2022-02-15	News conference following Russian-German talks.txt	blockade	1
2022-02-21	Security Council meeting.txt	blockade	2
2022-02-21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txt	blockade	1
2022-03-16	Meeting on socioeconomic support for regions.txt	blockade	2
2022-09-30	Signing of treaties on accession of Donetsk and Lugansk people's republics and Zaporozhye and Kherson regions to Russia.txt	blockade	1
2022-10-27	Valdai International Discussion Club meeting.txt	blockade	1
2022-11-22	Meeting with President of Cuba Miguel Diaz-Canel Bermudez.txt	blockade	1
2022-12-21	Meeting of Defence Ministry Board.txt	blockade	1
2023-01-18	Meeting with Great Patriotic War veterans, residents of besieged Leningrad and representatives of patriotic public associations.txt	blockade	1
2023-02-09	Meeting with Minister of Transport Vitaly Savelyev.txt	blockade	1
2023-02-09	Meeting with representatives of the aviation industry.txt	blockade	1
2023-02-21	Presidential Address to Federal Assembly.txt	blockade	2
2023-04-04	State Council Presidium meeting.txt	blockade	1
2023-06-14	Meeting with Prime Minister of Cuba Manuel Marrero Cruz.txt	blockade	1
2023-07-13	Plenary session of the Future Technologies Forum.txt	blockade	1
2023-09-30	Address on Day of Reunification of the Donetsk People's Republic, Lugansk People's Republic and the Zaporozhye and Kherson Regions with Russia.txt	blockade	1
총계	총 17건		19회

Abstract

Analysis of Russia's Ukraine war framing strategy through text-mining

Kim Byung-Ro

Public Policy Maj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uses text mining to analyze comments made by Russian President Putin. It aims to identify the type of propaganda framing Putin employs to achieve policy goals regarding Ukraine and to forecast the purpose, intention, and effects of Russia's framing strategy. The study focuses on information from the presidential office, which directly reflects Putin's announcements and comments, thereby representing the Russian government's policy stance. Analyzing the patterns and strategies of propaganda employed by Putin's government can provide insights into Russia's policy direction.

Information posted on the website of the Russian President's Office from October 2021 to September 2023 was analyzed using a crawling method. To dissect Putin's comments, the word2vec algorithm, a neural network model that learns word associations from a large corpus of texts, was employ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Putin frequently accuses the Zelensky government of being an illegitimate regime, born from a coup, and labels it as a "Nazi" entity idolizing Bandera, a controversial Ukrainian figure. These findings confirm that 'Ukraine' and 'The West' are associated with negative imagery, and Russia is maximizing propaganda effectiveness by justifying the invasion of Ukraine with strategies like 'Nazi Naming' and 'Genocide Storytelling', which evoke the trauma of World War II for the Russian people.

Russia's framing strategy potentially influences agenda sett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by portraying Ukraine and the West as "existential threats" to Russians. This portrayal can justify military actions such as additional mobilization and large-scale missile attacks on civilian infrastructure under the guise of neutralizing Ukrainian threats. Additionally, by labeling Ukraine's ruling power as 'Nazi' and 'Fascists', Russia generates revulsion. With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looming in Russia, political elites may exploit anti-Ukraine sentiment for political gain,

complicating potential armistice negotiations. Putin's emphasis on liberating Donbas residents as a rationale for the "special military operation" may limit the Zone of Possible Agreement (ZOPA) in foreign policy, as conceding Donbas and Crimea is unacceptable in Russia. Thus, heightened Russian animosity towards Ukraine, fueled by Russia's framing strategy, could exacerbate tensions between the two nations.

Exploring Russia's "frame" strategy in the context of the Russia-U.S. conflict is significant, especially considering South Korea's vulnerability to North Korea's information warfare threats. Given the strengthening tie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post-Ukraine war, North Korea might adopt strategies from the Russia-Ukraine conflict for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analyzing Russia's "frame" strategy in Ukraine and deriving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security policy is crucial.

Keywords: Putin, Text Mining, Ukraine, Frame Strategy, Word Embedding, Word2Vec

Student Number: 2019-24643